

정보·소비사회의 새로운 해석과 통찰

질문은 답을 결정한다. 설사 그것이 암묵적인 질문이라도, 답은 이미 거기에 정해져 있다. 올해에 출판된 책을 중심으로 파악한 질문과 답을 정리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이다. 물론 출판물은 2~3년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현실을 고민한 학자나 개인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보다는 조금 뒤늦은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출판물을 통해 나타난 현실에 대한 사고방식을 섭렵하고 같은 고민을 발견하면서 마음 속에서 회열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정보사회 낙관론에 문제제기

한 명의 사회학자가 모든 사회학적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물리적인 불가능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책을 사회학적 업적이라고 인정하느냐의 문제도 들어 있다. 따라서 대개는 사회학자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학자들의 글을 사회학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은 학문으로서의 사회학보다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학을 원한다. 이런 고민은 결국 정보사회라고 불리는 낙관적 흐름과 다른 한편 생태학적·환경적 위험과 경제적 위기로 불리는 비판적 흐름 모두에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개인용 컴퓨터를 갖지 않으면 안 될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전자주민증이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고속도로가 국가의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무도 이 거센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1997년은 이런 낙관론적 견해에 사회학적 문제제기를 하는 해가 되었다.

권태환과 조형제가 편집한 《정보사회의 이해》(미래미디어), 홍성태가 비판론적 견해를 가진 외국의 논문들을 번역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문화》(문화과학사), 데이비스 론펠트의 책을 번역한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자작나무)가 바로 기술의 사회적 관계, 정보사회에서의 인간성, 자율성, 연대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비판론의 고전인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

“ 현실문제에 고민하는 이들은 사회학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길 원한다. 이런 고민은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 흐름과 생태학적 위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비판적 흐름에 관심을 갖게 한다. ”

(박영률출판사)가 다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는 기술의 영향을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 제어하려는 노력을 통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사회라는 기술적 기반의 강화와 아울러 사회문화적 영향 역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후기 근대인지 아니면 근대의 지속인지는 학문적인 토론감일 것이다. 그러나 읽는 재미는 우리 삶의 변화를 성찰적으로 추적하는 책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는 바로 사회관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체현물이라는 관점에서 김진균과 정근식이 엮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문화과학사)과 사라 네틀텐의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한울)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루한 담론을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아직도 근대의 우리에게 간혀 있으며, 일상생활 수준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대중적 관심의 대상인 성, 광고하고 끈질기게 인간을 구속하는 원초적 집단인 가족에 대한 새로운 통찰도 지속되고 있다. 강선미 외의 《가족철학》(이화여대 출판부), 다이애너 기턴스의 《가족은 없다》(일신사)가 그런 맥락에서 나온 출판물이다. 그러나 많은 출판물들은 역시 기존의 여성주의적 해방의 관점을 채택하면서 현실의 남녀차별을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위기 다룬 이론서 잇달아 등장

생태학적 환경위기와 인위적인 재난의 빈발은 결국 위험에 대한 이론서들이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머레이



정보사회의 거센 흐름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에 사회학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한 해였다.

북친의 《사회생태론의 철학》(솔)과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새물결), 마이클 레드 클리프와 테드 벤턴이 엮은 《지구환경과 사회이론》(한울아카데미) 등의 책이 올해에도 뒤를 이어 같은 맥락에서 출판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서구의 경험은 우리에게 거의 무의미하며 현실적용이 무망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각되지 않는 위험, 지속되는 환경과 파괴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1998년에는 한국의 보다 비판적인 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은 1987년 민주항쟁이 일어난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1993년부터 시작된 문민정부의 개혁, 혹은 개혁의 실패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와 접근도 역시 정치적인 행위이며, 평가를 위한 출판 역시 정치적인 행위였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10년을 위한 의례는 있었고, 의례가 끝나자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있다(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당대), 《6월항쟁 10주년기념 자료집》(사계절)).

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권을 회복하였고, 1991년에는 지방의회선거가 있었으며, 1995년부터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선거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이 있음을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신행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민음사), 황

태연 《지역패권의 나라》(무당미디어), 박준식 외 《지방자치와 지역발전》(민음사)은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보수주의적 사회경향은 무언가 그것이 아닌데하고 의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고민을 던졌다. 고민의 결과들이 출판물에도 표출되었다.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사회비평사), 앤소니 기든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한울), 니스벳과 맥퍼슨의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문학고지성사), 안병직 외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까치),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I·II》(자유기업센터)가 바로 이런 질문에 답을 제공하리라 본다.

일상에서 지나친 것을 되돌아본 한해

변화하는 현실을 소화시키면서 쫓아가기에도 숨이 차는데, 현실에 대해 쓴 출판물들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숨가쁜 일이다. 그러나 본인이 경험한 현실 속에서 정보사회, 소비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상에 대해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출판물을 접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또한 우리에게 부딪치고 있는 사회체제의 위험은 이제 그저 한 풀이하는 모양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이론들, 정치체제의 변동에 대한 일상생활적인 대응들을 통해, 일상에서 지나쳐버린 것을 되돌아보는 출판물들이 돋보이는 한해였다고 평가한다. ❖